

2년째 매주 토요일 발마사지 봉사 조선대 병원 '백의의 천사들'

“팔 아파도 환자들 밝은 표정 보면 마음 뿌듯”

주말인 지난 24일 오후 4시, 조선대병원 2층 중앙 휴게실. 조용하기만 하던 병원에 약간의 소란(?)이 일었다. 휴게실 문 사이로 간호사 여러 명이 바쁘게 움직이며 이동식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간이침대를 참가 쪽으로 옮기니 그럴 듯한 병실 하나가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휴게실 한 칸에서는 환자복을 입은 사람과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은 20여명의 환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두 시간동안 실시되는 무료 발마사지 봉사 위계였다. 조선대병원 입원 환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다.

일부 환자들은 점심을 마치자마자 휴게실로 달려오기도 한다. 밝은 미소, 친절한 말씨의 간호사들이 정성스럽게 해주는 마사지는 병실에서 지친 몸을 날아갈 듯 만들어 준다.

2년 전부터 환자들에게 발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는 이들은 회복실 조선자 수간호사, 내시경실 문상미·이세미 간호사, 장기이식 코드 장은아 간호사, 2층환자실 오성원·김진실 간호사, 신



장기실 최경희 간호사, 1층환자실 김희숙 간호사 등 8명이다.

이들의 봉사가 빛나는 것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느긋하게 쉬기를 원하는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4명씩 번갈아 가며 2년 동안 단 한 주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제는 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어느덧 토요일 오후 4시는 환자들의 약속 시간이 돼버린 것이다.

이들의 봉사가 빛나는 것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느긋하게 쉬기를 원하는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4명씩 번갈아 가며 2년 동안 단 한 주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제는 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어느덧 토요일 오후 4시는 환자들의 약속 시간이 돼버린 것이다.

봉사 초기에는 원내방송과 포스터 홍보로 환자들을 모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간호사들의 발마사지 실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현재는 매주 20여명 정도의 환자들이 몰려 2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전문 마사지사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 한 사람이 두 명의 환자만 대해서도 팔이 뻐뻐하게 굳어 오고, 온몸에 땀이 흥건해 땀이라고 한다. 한 사람 당 환자 다섯 명을 모두 마사지하고 나면 팔이 저려오는 것은 물론 다리와 어깨, 허리까지 빠근하지 않은 곳이 없다.

“마사지 하는 동안 이곳저곳 아프고 힘들죠. 하지만 마사지를 받은 환자들의 표정이 조금이나마 밝아지고, 만족해 하면 너무 즐거워요. 몸은 피곤해도 제 마음이 너무 편하고 뿌듯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봉사를 받은 기분이 들어요”

1주일간의 피로가 극에 달한 토요일, 자신들의 쉬는 시간을 환자에게 나눠주는 이들에게 ‘백의의 천사’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았다.

/채희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전국기능경기대회 선수단 해단식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26일) 광주시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광주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해 입상 선수에게 상장을 수여한 뒤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광주시 제공>

한승원씨 여성아카데미 초청 강연

장흥 출신 소설가 한승원(70·사진)씨가 2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여성아카데미 초청으로 강연했다.

이날 한씨는 ‘시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각박한 사회현실 속에서 인간 본성을 상실하고 탐욕어린 삶을 살아 가는 현대인에게 문학적인 감수성으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조화로운 삶, 향기로운 삶을 누리라고 권하며 재미난 인생살이 경험과 문학 이야기를 전했다.

한씨는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소설 ‘목선’으로 대 한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했으며 ‘아제아제 바라아제’, ‘원효’, ‘불의 딸’, ‘해변의 길손’, ‘다산’, ‘초의’, ‘희망사건관’을 내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전쟁 고아 1천명 제주도로 피신 러셀 브레이즈델 동상 광주에 세운다

충현원에... 건립 모금액 7천7백만원 넘어

한국전쟁 초기 서울에 있던 고아 1천여명을 제주도로 피신시킨 고(故) 러셀 브레이즈델(Russell Blaisdell) 군목(軍牧)의 동상이 광주에 세워진다.

26일 광주시 남구의 사회복지법인 충현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한 브레이즈델 군목 동상건립 모금액이 채도하면서 현재 7천700만원을 넘어섰다. 동상 건립에는 1억원 이상 소요되며, 제막식은 오는 12월17일 충현원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동상은 브레이즈델 군목이 한 팔로는 전쟁고아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또 다른 고아의 손을 잡는 모습을 담아 실물 크기대로 제작된다.

브레이즈델 군목은 미 공군의 종교목사로 6·25전쟁에 참전, 서울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보살피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연합군이 후퇴하자 지난 1950년 12월 20일 1천명에 이르는 고아들을 제주도로 피신시켰다.

브레이즈델 군목의 ‘고아 구출작전’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충현원 측이 설립자인 고(故) 박순이 선생의 기록 발굴을 위해 지난 2005년 미국을 방문, 브레이즈델 군목을 만나면서부터다. 이때 브레이즈델 군목 등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전쟁 사진전을 열고 있었는데, 참전용사들을 통해 브레이즈델 군목의 선행을 알게됐다고 충현원 측은 전했다.

당시 브레이즈델은 한국 전쟁 중 고아들을 대피시킨 사실을 충현원 측에 다시 한 번 확인 해준 뒤 자신의 회고록을 번역·출판해 달라며 한국어 판권을 충현원에 기탁했다. 브레이즈델 군목의 회고록은 그가 숨진 뒤 ‘전란과 아이들, 그 일천명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5월 출판되기도 했다.



한국전쟁 초기인 지난 1950년 12월 20일 미 공군 소속 브레이즈델 군목(사진 오른쪽 아래)이 제주도에 도착한 전쟁 고아를 수송기에서 내려주는 장면. <충현원 제공>

충현원 유혜량 목사는 “한때 전쟁고아를 돌보던 충현원이 이제는 해외입양인이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생명 존중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그 상징으로 브레이즈델 군목의 동상을 세우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충현원 062-652-5500.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청국장이 웰빙 대세... 세계화 나서야”

중서 한국 전통식품 강연 토하정박사 박원기씨

“한국의 전통 콩 발효식품인 청국장은 심혈관질환 예방효과가 뛰어나다. 이를 동결건조시키면 맛과 영양을 보존하면서도 특유의 냄새를 없앨 수 있어 외국인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소비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식품 청국장의 세계화’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마치고 돌아온 박원기(79) 박사(전 조선대·동신대 교수)는 “중국인들이 콩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호응이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네 팔,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서 콩 발효식품을 먹고 있다”며 “한국 전통식품인 청국장을 외국인도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제품화해 세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하정 박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박 교수는 지난 1998년 미국 루이스 이그나리오 교수가 ‘인체내 NO(일산화질소) 생성과 그 효과’라는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을 받는 것을 보고 청국장과 늬은 호박을 떠올렸다.

이러한 효과가 많은 ‘아르기닌’ 성분이 콩단백질에, ‘시트루린’이란 성분이 호박씨에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청국장은 바실러스균에 의해 발효되며 뇌졸중 예방효과를 비롯해 골다공



박원기 박사

증·고혈압 예방, 간기능 개선, 심장병 돌연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교수는 3년여 전부터 청국장 연구에 매진해 특유의 냄새를 없애면서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동결건조’를 통해 찾았다.

발효된 청국장을 영하 40도에서 압력을 낮추면 수분이 증발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든 제품은 조만간 해남 명정식품(해남자연농업 영농조합법인)에서 상품화될 예정이다.

해초 청국장 분말과 환을 ‘낮토 플리펩티드’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는 명정식품은 지난 2006년부터 중국시장에 진출해 현재 매장 250 곳을 확보하는 등 청국장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박원기 박사는 내년에는 지난 2000년 식품공학을 전공한 두 딸과 함께 펠리 ‘한국식품사전’을 국내외 식품의 장단점을 분석한 항목을 추가해 새롭게 펴낼 계획이다.

/송기기자 song@kwangju.co.kr



류한덕씨 이동범씨 안순일씨 신태학씨 손정선씨

광주사범·사대·교육대 ‘자랑스런 동문’ 선정

광주사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전원범)가 25일 열린 총동문 체육대회에서 ‘2009년도 자랑스런 동문’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는 류한덕(광주사범 13회, 전 광주북구청장), 이동범(광주교대 1회, 전 대성초등학교교장), 안순일(광주교대 4회,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신태학(광주교대 5회, 전 순천교육청 교육감), 손정선(광주교대 10회, 광주교대 교수) 등 5명이다.

/채희기자 chae@kwangju.co.kr

“행복합니다. 멋지게 살겠습니다”

타블로·강혜정 결혼



예곡이의 타블로(본명 이선웅·29)와 배우 강혜정(27)이 26일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더 베일리하우스에서 결혼했다.

타블로는 지난해 ‘첫눈에 반해 제 운명임을 알게 된 혜정’이라는 제목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내년 중순 우리는 엄마 아빠가 된다”고 2세 소식까지 전해 놀라움을 줬다.

인문에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결혼식의 하객은 배우와 가수로 갈렸다. 강혜정의 하객은 영화 ‘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안성기, 송강호, 임하룡, 신하균, 차태현, 송윤아, 한재영, 김선아, 정해철, 공효진, 하지원 등의 배우들이, 타블로의 하객은 바비킴, 부기킴즈, 리쌍, 정인, 뱀, 하동균 등의 가수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축

- ▲이승수(전 광주매일 제작국 부국장)·정옥임씨 장남 정환근 신희수(한국식품 대표)·정영임씨 장녀 주현양=31일(토) 낮 12시30분 금호웨딩 30층 아시아나홀.
- ▲고재욱(전 삼도초등학교교장)·양현숙(광주YWCA 사무총장)씨 장남 기혁(동부건설 법무팀)군 이계방·남승희씨 장녀 은혜(투보이 MD)양=31일(토) 낮 12시30분 조선웨딩 컨벤션 1층(영빈관)

향우회

- ▲재광보성읍 향우회(회장 김선주)=27일(화) 오후 6시30분 북구 임동 페르마. 062-525-5566.
- ▲재광곡성군 향우회 월례회=28일(수) 오후 7시 무등파크호텔 가는

- 길 산내들. 018-620-0900.
- ▲재광 순창 향우회(회장 공병철) 월례회=29일(목) 오후 6시 동구 대인동 화랑궁 회관. 062-224-1800.

동창·동문회

- ▲복성중 제27회 동창회(회장 윤영천) 월례회=27일(화) 오후 7시 영미오리타. 062-527-0249.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년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 12~22세 남자. 062-953-6101.

- ▲광주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희망상담=가족 갈등,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상담 및 개입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진행. 062-234-5791.

-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 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모집

- ▲꽃골프 동호회 및 친선경기=발로 볼을 차 흙에 넣는 꽃골프 회원 모집,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꽃골프장. 010-4604-4608.
- ▲김양식·김공정·선원 일하실 모집=초보자·경험자 무관, 7명 급구함,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백운파출소 부근. 062-671-3693.
- ▲전통문화 보존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1-9440-2512.
-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 모집=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독서치료사·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방과후아동지도사·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심리상담사·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시, 강사·시인·아동문학가·심리상담지도사 김성구 박사, 문의 평생교육원(062-670-2167, 2168)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오카리나 회원 모집=매주 목요일 주1회(3개월) 건강타운복지관 1층, 광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062-603-8860~71.

부음

- ▲임정임씨 모친상 이기홍(광주 시청)·정예·오순·순규·은순씨 모친상=발인 28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 ▲심영우씨 별세 석기·학기·경순·점숙·경숙씨 부친상=발인 28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 ▲주관심씨 별세 박희수·승호·경자·숙자·경신·광신씨 모친상=발인 28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 ▲박형진씨 별세 송근·봉기·동규·해균씨 부친상=발인 27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 ▲장양갑씨 별세 판기(KIA타이거즈 1군 매니저)씨 부친상=발인 27일(화) 광주한국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380-3444.
- ▲박경환씨 별세 김세환(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씨 모친상 임종대(전 광주은행장)씨 빙모상=발인 27일(화) 강남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 02-3410-3153.
- ▲이실례씨 별세 고주석(전국살수연합회장)씨 모친상 박종래(대우캐리어)씨 빙모상=발인 27일(화) 광주병원 장례식장 1호. 062-260-7271.
- ▲박소진씨 별세 중두·중환·귀례·회통씨 부친상=발인 27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 ▲김형두씨 별세 영수·윤아·상아·정아씨 부친상=발인 27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7분향소. 062-231-8907.
- ▲송갑진씨 별세 혜숙·향란씨 부친상=발인 27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 ▲구희문씨 별세 형규·영규·정희·화희씨 부친상=발인 27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 프리드

신진국영 프레스

현대중압상조

가임폰트 1566-4499